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 진로 시간에 우리 학급은 ‘디지털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쉽게 이해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강연을 들어 잘 알고 있듯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그것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의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훼손이 심각하여 현실의 공간에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을 가상의 공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못한 적이 있지요?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을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간접적이지만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 체험 기술과 결합하여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석굴암을 가상 체험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문화유산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 본다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문화유산 복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학교와 가까운 ○○ 박물관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조선 시대 한양 도성 체험전’이 다음 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한양 도성을 저와 함께 걸어 보지 않겠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화유산과 관련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문화유산 훼손의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④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해 사전에 청중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관심사**
: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관심이 많으니,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든 사례를 언급해야겠다. ----- ①

***요구**
: 발표 내용이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야겠다. ----- ②

***사전지식**
1)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용어가 낯설 테니, 개념을 설명해야겠다. ----- ③
2)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니, 문화유산 복원을 디지털 기술과 관련지어 설명해야겠다. ----- ④

***지역**
: 학교 가까운 곳에 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해야겠다. ----- 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에게 질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문화유산의 종류에 따라 디지털 복원의 가능 여부가 다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아.

- 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 ② 문화유산의 복원을 과학 기술의 차원에서만 다룬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③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문화유산을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④ 얼마나 훼손되어야 현실 공간에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복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발표 내용이 유형 문화유산에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한옥을 짓는 기술과 같은 무형 문화유산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할 수 있는 건가요?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엑스선이라 하면 흔히 의학 분야에 활용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엑스선이 미술 작품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보여 주면서) 먼저 인물화를 하나 보시죠.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인물화는 고희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희 작품 전시회에서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다음 작품을 보시죠.

(화면으로 '그림 2'를 보여 주면서) 이 작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 고희의 '잔디밭'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인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밝혀내는 데 엑스선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엑스선이 이용됐단니까 의아하시죠?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긴데, 과학자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고희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캔버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복원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보셨던 이 인물화입니다.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희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회에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 주며) 자, 이제 이 두 그림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 데 엑스선이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해야겠군.
- ② '그림 1'과 '그림 2'를 작가가 한 캔버스에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해야겠군.
- ③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켜야겠군.
- ④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해야겠군.
- ⑤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표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그 이유를 뒷부분에서 알려 주어야겠군.

5. 위 발표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를 마무리하여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 ②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였다.
- ③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 ④ 발표 중간 중간에 그림들의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 ⑤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였다.

[6~7] <보기 1>은 '생태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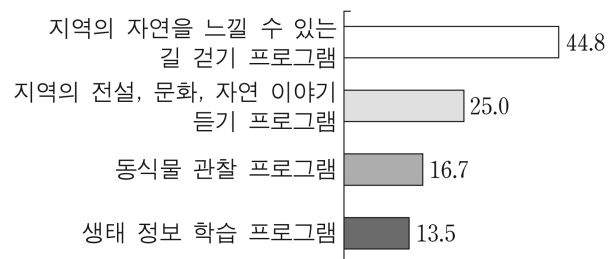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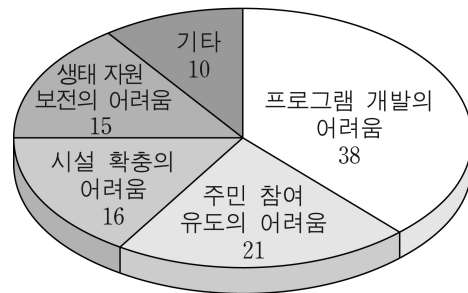
최근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 관광은 경치를 보고 즐기는 기존의 관광과 달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다음 세대로 잘 보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무리한 개발로 숲과 늪지가 사라지거나 관광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생태계가 오히려 훼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보아 생태 관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도 생태 관광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 조사 자료

1. 관광객들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 유형(%)



2. 지방 자치 단체의 생태 관광 운영상 어려움(%)



(다) 우수 사례

- □□ 지역은 민물고기 생태관과 인근 동굴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제고됨.
- ○○ 지역은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탐구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계 소득이 증대됨.

<보기 2>

- 서론: 생태 관광의 의의와 현황
- 본론
 1. 문제점 분석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라. 관광객의 태도 측면
 2. 개선 방안 제시
 - 가. 생태 자원 개발 측면
 - 나. 지역 주민의 참여 측면㉣
 - 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
 - 라. 관광객의 태도 측면
- 결론: 바람직한 생태 관광을 위한 노력 촉구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에서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을 다룬다.
- ② (가)와 (나)-2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생태 관광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 문제를 다룬다.
- ③ (나)-1에서 지역의 자연이나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룬다.
- ④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생태계의 훼손' 문제를 다룬다.
- ⑤ (나)-1과 (다)에서 생태 보전을 고려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생태를 보전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다룬다.

7.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할 것.

- ① 관광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관광객들의 승용차 배기가스로 인해 그 지역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상품이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자연은 우리 세대의 자원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그러므로 생태 관광을 할 때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식물을 관찰할 때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 ③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철새를 가까이에서 구경하느라 철새를 쫓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태 관광은 자연과 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동시에 살리는 상생의 관광이 되어야 한다.
- ④ 생태 관광은 양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태 관광의 규모를 키우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한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수용 인원을 제한해야 자연을 보전할 수 있다.
- ⑤ 자연을 즐기면서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자연을 충분히 즐기되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객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8. <보기>의 항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
- ㉡.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 ㉢.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
- ㉣.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 ㉤. 주관적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

<답사 보고서>

제 목: 담양 일대의 정자를 다녀와서
작성일: 2013년 ○월 ○일
작성자: □□ 고등학교 '우리 문화 유적 탐방 모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자 문화가 발달해 왔다고 한다. 답사 전에 읽어 본 책에 의하면 16세기에는 이름난 누각과 정자의 수가 무려 885개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조선 시대 선비 문화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담양 일대의 정자를 찾아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담양에 도착해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이 정자는 그림자가 쉬고 있다는 이름만큼이나 머물러 쉬고 싶은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였다. 우리를 안내해 준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사화를 겪은 후 낙향한 김윤제가 지은 정자로, 정철 등과 교류하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 한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며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 이 정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인 소쇄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정원은 16세기에 양산보가 지은 원림으로, 자연의 풍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곳곳에 정자를 두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답사에서 돌아보았던 정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가꿔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답사지를 떠났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 (가)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해 보자.
-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를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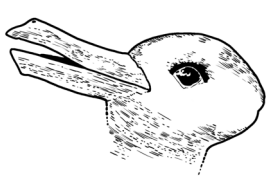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오리 토끼' 그림
-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
-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 ①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며 선입견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는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므로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② '오리 토끼' 그림을 보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탐구하려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 ③ 처음엔 '오리 토끼' 그림이 오리로 보였으나 선입견 없이 다시 보니 토끼로도 보여 신기했다. 학문 탐구에서 대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 ④ '오리 토끼' 그림을 보니 얼마 전 모둠 활동 중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워 싸웠던 일이 떠올랐다. 친구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 ⑤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봐야 함을 알았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를 해 왔던 스스로를 반성했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얼마 전 학교에 게시된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 전공 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았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 어떤 실습일지 궁금했는데, 대학교 선배들과 모듬을 이루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글의 일부를 써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이번 체험은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이번 전공 체험 교실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었다. 전공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예전에 비해 줄었고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전공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면 어떨까?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① |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 ② |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③ |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⑤ |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1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렇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곁-웃[거둔],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담-요[담:뇨], 흘-이불[흔니불]

- | | | |
|---|-------|-------|
| | ㉠ | ㉡ |
| ① | [꼬디랑] | [꼬초목] |
| ② | [꼰디랑] | [꼬초목] |
| ③ | [꼬디랑] | [꼬도목] |
| ④ | [꼰디랑] | [꼬도목] |
| ⑤ | [꼰디랑] | [꼰노목] |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응.
 경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내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경준: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14.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의, ㅅ, ㅣ’가 있었다. 이 중 ‘의, 의, ㅅ’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의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ㅅ

(예) 늑+의: 늑미 뜯 거스디 아니흐거든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거북+의: 거북비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ㅅ: 大王ㅅ 말썸마사 울커신마론 (대왕의 말썸이야 웁으시지만)
 나무+ㅅ: 나무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다섯 **술위+㉡** 글위를 낄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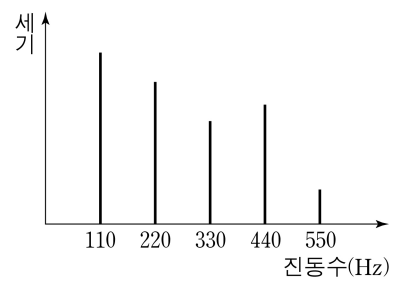
- | | | |
|---|---|---|
| | ㉠ | ㉡ |
| ① | ㅅ | 의 |
| ② | ㅅ | 의 |
| ③ | 의 | 의 |
| ④ | 의 | ㅅ |
| ⑤ | 의 | ㅅ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부분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부분음 중에서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 하는데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

악기가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 스펙트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그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세로 막대들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림>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에서는 막대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협화도는 음정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서 음정이란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을 말하며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가령, ‘도’와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5/4이고, ‘도’와 ‘솔’ 사이처럼 완전5도 음정은 3/2이다. 그러므로 장3도는 완전5도보다 좁은 음정이다. 일반적으로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본다. 가령, 음정이 2/1인 옥타브, 3/2인 완전5도, 5/4인 장3도, 6/5인 단3도의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을 협화 음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음정을 불협화 음정이라고 하는데

[A]

16세기의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는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은 협화 음정, 그 외의 음정은 불협화 음정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음악은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음악에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다.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고,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이며,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다.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든다.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하는데,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한다. 예컨대 조성 음악*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음들을 소재로 한 가락이 나타나고,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성 음악: 으뜸음 ‘도’가 다른 모든 음계 음들을 지배하는 음악으로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양 음악이 이에 해당한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음악의 아름다움을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과 관련지어 탐구하고 있다.
- ③ 소리를 구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
- ④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다.
- ⑤ 소리에 대한 감각이 음악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17. 윗글의 <그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②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 Hz로 인식된다.
- ③ <그림>에서 220 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져도 음색은 변하지 않는다.
- ④ <그림>은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다.
- ⑤ <그림>에 표현된 소리의 부분음 중 기본음의 세기가 가장 크다.

18. 음악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①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서 들어갈 매우 강한 시끄러운음이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 ② 첫째 음과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 ③ 낮은 음고의 음들을 여러 번 사용하여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악을 만든다.
- ④ 플루트의 청아한 가락으로 상쾌한 아침의 정경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만든다.
- ⑤ 장3도로 기쁨을, 단3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음악을 만든다.

19.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바이올린을 연주했을 때 발생하는 네 음 P, Q, R, S의 기본음의 진동수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음	P	Q	R	S
기본음의 진동수(Hz)	440	550	660	880

- ① P와 S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협화도가 크다.
- ②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서로 같은 것이 있다.
-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P와 Q 사이의 음정은 Q와 R 사이의 음정보다 좁다.
- ⑤ P와 Q 사이의 음정은 장3도이다.

20.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썸여림은 소리의 세기로, 음악에서 크고 작은 소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② 가락은 서로 다른 음높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③ 음색은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으로, 음악에서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하는 데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④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⑤ 화성은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연결된 흐름으로,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 기>

윗글의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뒤라.
- ②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③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④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 ⑤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앓은 메기슁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_____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_____ [A]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_____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_____ [B]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_____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_____ [B]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_____

_____ [B]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_____ [B]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_____ [B]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_____ [B]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②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3.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 ②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24.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②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③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 ②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하고 있다.
- ⑤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2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7.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나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 ②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⑤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28~3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

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미장센(mise en scène):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과 실행.

2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② 중심 화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 ③ 중심 화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해 주요 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29.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 ②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④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 ⑤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30. 윗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 ②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⑤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31. [위기 시기]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평상시 추구하던 삶의 도덕적 의미를 상실한다.
- ② 사람들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
- ③ 사람들이 생계 활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찾는다.
- ④ 사람들이 목표와 규범 차원에서 행동한다.
- ⑤ 사람들이 관심을 속에서 성으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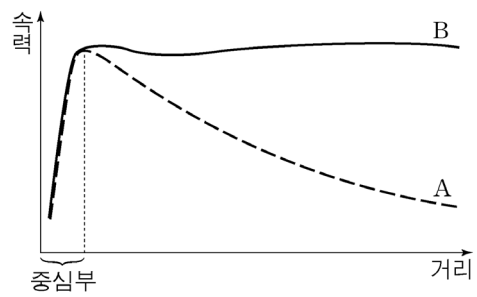
32. '집합 의례'에 대해 ㉠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사회에서는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형성된다.
- ② 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 ③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 활동의 성스러운 의미를 얻는다.
- ④ 집합 의례의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은 문제 상황을 성 또는 속의 문제로 규정한다.
- ⑤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 의례를 거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인다.

[33~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

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 ②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긴다.
- ③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 ④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 ⑤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34.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 ②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더 크음을 보여 준다.
- ④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⑤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3 5~3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 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 들만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 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 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는 때로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를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효자 꿈에 행복하시지요.

㉠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얄은 소갈머리가 가없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 뿐이었다.

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아니 그는 젊은이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너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그래도 너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는 아직도 가막소*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가없는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짐했다. 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새를 사더라도 전달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밤마다 그를 괴롭혀 대고 있는 빛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찌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그건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내에겐 또 한 가지 ㉡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견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깃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실제로 빛줄기를 앞세운 ㉢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사내는 벌써부터 ㉣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 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빛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 대고 있었다. 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줄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콩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가리며 입에 문 콩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던 순간이었다.

후루룩—!

어둠 속 어느 방향으로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 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썰게 꺼 냈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옷깃 밖으로 끌려 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켜올 때 녀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빛에 쫓긴 녀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사내는 녀석의 ㉥ 분별없는 행동이 회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내는 잠시 녀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녀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빛줄기에 쫓긴 녀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놀란 녀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녀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 가막소: 교도소.

3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 ④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36.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①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 ②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졸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3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⑤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은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대 문명이 만들어 낸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은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사진 작품들을 회화주의 사진이라고 부른다.

스타이컨의 ㉠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1902년)은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서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을 사용하였다.

스타이컨은 1901년부터 거의 매주 로댕과 예술적 교류를 하며 그의 작품들을 촬영했다.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표현성을 강조하

는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기꺼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 살지 않게 처리하여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묵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처럼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39. ㉠과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상들의 질감이 잘 살지 않도록 인화한 것은 대리석상과 청동상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 ②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근경의 사진과 합칠 때 대비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 ③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보며 같은 자세로 있게 한 것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④ 원경이 밝게 보이도록 한 것은 <빅토르 위고>와 로댕 간의 명암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 ⑤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쓴 것은 촬영한 대상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기 위해서였다.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빅토르 위고는 사진과 조각을 모두 해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 ③ 스타이컨의 작품에서 명암 효과는 합성 사진 기법으로 구현되었고 질감 변화는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로 실현되었다.
- ④ 로댕은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다.
- ⑤ 스타이컨의 사진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41.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스타이컨의 작품을 감상하고 글을 써 보자.

예전에 나는, 사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스타이컨의 생각에 동감하게 되었다. 특히 ㉡ 회화적 표현을 사진에서 실현시키려 했던 스타이컨의 노력은 그 예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 스타이컨이 빅토르 위고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 스타이컨이 로댕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 기술적 도구로 여겨졌던 사진을 예술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한 스타이컨의 창작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엿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술, 과일 등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앓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로 가셔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중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서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齋)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42.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②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 ③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 ④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
- ⑤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다.

43.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실 속에, ㉡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 ② ㉠은 인연을 맺는, ㉡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③ ㉠은 제의성이, ㉡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④ ㉠과 ㉡은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44.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②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 ③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④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⑤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45.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점]

- ① 망양지탄(亡羊之歎)
-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 ③ 독야청청(獨也靑靑)
- ④ 두문불출(杜門不出)
- ⑤ 일편단심(一片丹心)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